

|오늘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
하였음이니라”

_ 사 60 : 1

통 권 _ 제 311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편집인 _ 미디어위원장 박대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2년 12월 2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이제는 교육선교다” - 국제교육선교센터 2012 미래목회세미나

하나님의 나라 향한 기독교 교육 선교

11월 19일 아침 10시, 주님의교회 소예배실인 애니 앨러스 홀에서 주님의교회 국제교육선교센터에서 주관한 ‘2012 미래목회세미나’가 열렸다. 2009년 이래 주님의교회에서 강조되어 온 ‘교육’과 ‘선교’에 대한 그간의 성과와 목표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전국 각지의 목회자 70여 명을 포함, 교육선교에 관심이 있는 교회의 성도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교육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조광민 목사의 진행과 최상인 장로의 기도로 시작했다.

그 첫 번째 주제 강의는 주님의교회의 박원호 담임목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독교 교육 선교’였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교회의 근본도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를 부르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설명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 제국’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님의교회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기독교인의 본질임을 중심으로 가꾸어 온 교육과정인 ‘12단계 성경공부’와 ‘예수친구사역’에 대해 취지와 과정을 개괄적으로 소개했다. 이어 주님의교회에서 그간 진행해 온 국제교육선교의 사례로 베트남과 케냐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국제교육선교센터’의 설립 취지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롬 14:17)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반으로 교회의 근본 목적과 가

치를 새롭게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교회 성장이라는 자기 모순적인 틀에서 벗어나 사회를 향한 공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중심적 위치를 회복해야 함을 역설했다.

선교의 뿌리깊은 바탕, 교육의 역사

두 번째 주제는 장신대 선교학 김영동 교수의 ‘선교적 관점에서 본 교육선교’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증거로 발제를 시작한 김영동 교수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8-20)는 예수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선교 본질이 교육에 있음을 환기했다. 예수님의 사역에 이어 바울을 통한 초대 교회의 교육과 전도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이후 1555년 칼뱅이 4명의 선교사와 브라질에서 시작한 선교 활동이 근대 선교활동의 출발이고 이후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 선교와 교육이 결합하게 된 계기임을 설명했다. 경건주의의 아버지 필립 야콥 스페너는 기독교 교리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하면 설교의 대부분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고, 그 후계자인 프랑케는 교리를 암기하는 것 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함에 주목함으로써, 사실상 교육선교의 이념적 배경이 이 때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그 영향으로 19세기의 선교사들이 각자의 선교지

에서 서양 학문을 바탕으로 하는 근대적 교육제도를 설립하면서, 교육자와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육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소명

점심 식사 후, 미국 장로교 증경총회장인 이승만 목사가 ‘교육선교를 위한 한국교회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간증을 통해 교육선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했고, 이후 계명대 최봉도 교수와 주님의교회 조광민 목사, 김정형 목사, 박혜성 목사가 각각 해외 선교, 예수친구사역, 12단계 성경공부, 청소년사역원의 현황과 사역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고, 질의응답과 기도로 행사를 마쳤다.

행사 후 참석자들에게 행사 내용에 대한 설문지를 받았는데, 외부 참석자 23명, 주님의교회 참석자 19명이 응답했다. 외부의 경우, ‘교육선교’에 대해서는 60% 정도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세미나를 통해 그 구체적인 필요성을 느꼈다고 답하면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체계적인 커리큘럼의 개발과 선교사 및 교사의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를 기대했다. 내부 참석자의 경우, 84%가 ‘교육선교’를 알고 있으나 대부분이 이 세미나를 통해 비로소 그 구체적인 비전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주님의교회 자체의 향후 구체적인 계획과 프로그램이 공유되기를 희망했다.

애니 앨러스와 정신여고, ‘교육선교’의 산역사

공교롭게도 세미나가 열린 애니 앨러스 홀은, 주님의교회가 몸담고 있는 정신여고의 설립자인 애니 앨러스를 기념하기 위해 명명된 공간이다. 정신여고는 1887년 6월 의료선교사 애니 앨러스가 고종임금이 하사한 정동 28번지 사택에서 설립한 정동여학당을 모태로 하고 있다. 원래 애니 앨러스는 페르시아 의료선교를 준비하던 의학도로, 조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24세 처녀였다. 1885년 제증원이 개원하고 의사 알렌과 헤론이 의료 선교사로 조선을 섬기던 중 여의사의 필요가 절실하자,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가 그이를 조선에 파송한 것이다. 이 부르심을 받아 운명과도 같은 조선에 온 그이는 의료 선교사로 제증원 부녀과 여의사의 일을 맡으면서, 명성황후의 시의를 지냈다. 그이는 의사로 조선의 여성들을 진료하는 가운데, 근대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장로회 최초의 여학교인 정동여학당을 설립했다. 선교사 애니 앨러스 개인의 의지와 노력으로 시작한 어려운 출발이었지만, 이 한 사람의 오랜 기도

<2면에 계속>

주간 목회력

<새생명축제> -12.16(주일)

<유아세례 교육 및 예식>

-교육: 12.16(주일) 오후1:30 / 초등부실

-유아세례예식: 12.25(화)

<새생명살리기 ‘사랑의털모자’ 캠페인>

-전시회: 12.2(주일) 1층 로비

-접수: 12.9(주일)부터 1층 로비

(오전10:30~11:30, 오후12:30~13:30)

<청년부 제3회 신앙 나눔 콘서트>

-12.2(주일) 3:00 / 중예배실

<사진팀, 미술팀 작품 전시회>

-12.2(주일) 3주간 / 지하 소식당



아프리카 신생아 및 거여.마천동 중증 독거노인을 위한 생명 살리기 ‘사랑의 털모자’ 캠페인

생명 살리기
‘사랑의 털모
자’ 캠페인
은 늘푸른대
학 뜨개질 반
학생들로 시

개발국가 및 아프리카 신생아의 실태: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의 ‘어머니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 200만 명의 신생아들이 태어난 날 사망하며, 400만 명의 신생아들은 태어난 지 한 달 안에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신생아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폐렴과 설사, 말라리아, 저체온증 때문입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신생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태줄을 자르는 살균된 칼, 저렴한 폐렴 항생제, 그리고 저체온증을 막아줄 수 있는 털모자 등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으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머리로 방출되는 열이 약 70%에 달한다 합니다. 심한 일교차로 인한 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는 신생아에게 털모자를 씌워주면 체온을 약 2도 정도 올릴 수 있고 사망률을 약 70%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작년 아프리카 신생아 생명 살리기와 중증 독거노인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 돕는 운동입니다. 2012년 3월, 늘푸른대학 뜨개질반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신생아 털모자 뜨기 동(캠페인)을 이번 전사회를 통해 주님의교회 교인들에게 그 취지를 홍보하고 나아가 ‘사랑의 털모자’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명살리기 ‘사랑의 털모자’ 전사회를 11월 25일(주일)과 12월 2일(주일)에 1층 로비에서 개최합니다. 현재 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늘푸른대학, 장애우, 어와나 교사 및 미술팀의 전시지원 등 교우들과 기금 후원자들이 참여하여 11월 25일 현재 뜨개질 참여자 186명과 재료비 후원자 109명 총 295명이며 주체는 (사)섬김과나눔, 푸른대학이며 후원은 해외선교위원회와 지분과위원회 위원회이며 현재 완성 털모자는 신생아 모자 650개와 독거노인 모자 50개이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털모자 제작비용은 신생아 털모자 1개 당 3,500원의 재료비로 작은 수고와 함께 한명의 생명을 살립니다. 아프리카 케냐 신생아 털모자는 2013년에 제공하며 거여, 마천동 독거노인에게 드릴 털모자는 2012. 12월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후원 희망자 접수는 재료비 후원 1개 구좌는 신생아 털모자 3개 제작비가 일 만원이며, 5만원과 10만원 후원계좌도 있습니다. 직접 털모자 뜨기 참여는 털실과 뜨개질 안내서와 대바늘과 돗바늘이 제공되며 재료비 본인부담 일 만원입니다.

▶ 털모자 완성품 제출처: 주님의교회 1층 로비 상설안내데스크

매주일: 10:30~ 11:30, 12:30~13:30 (02-416-5181~2) 후원접수

* 털모자 접수와 뜨개질 강의도 합니다

▶ 후원계좌: SC 제일은행 204-20-518774 예금주 (사) 섬김과나눔

* 입금자 이름 뒤에 “털모자”라고 적어주세요



제 1 회 (사)섬김과나눔 봉사자 세미나



11월 10일(토) 오전10시 (사) 섬김과나눔에서는 주님의교회 소예배실에서 (사)섬김과나눔이 수행하고 있는 늘푸른대학, 무료급식, 족배달, 특별구제 등 사회복지사업에 봉사하고 있는 봉사자 70여명이 참석하여 “제1회 섬김과나눔 봉사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유성훈 목사의 기

도로 시작된 세미나에서 김창안 (사)섬김과나눔 상임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 각 사업 분야에서 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해준 덕분에 사업이 차질없이 잘 수행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2013년 (사)섬김과나눔의 중요한 사업 추진 방침을 설명하였다. 특히 김창안 상임이사는 “2013년에는 정신여중고의 도서관

및 다목적 교실 건축비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교회 각 부서가 자체 사업규모를 2012년 대비 10%이상 건축해야 하는 불가피한 재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하고 각 사업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진 특강 시간에는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성경 교수가 “자원봉사의 가치와 이해”란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김성경 교수는 강론에서 특별히 교회 자원봉사자의 자세에 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의와 화평과 기쁨을 위한 사명감” 그리고 “봉사 상대방의 입장에서의 이해와 공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함께 사역할 봉사자들이 가슴에 새겨야할 중요한 대목이었다. 특강이 끝난 후 세미나 참석자들은 각 사업팀별로 모여 금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을 위한 자유토론 시간을 가진 후 친교시간을 갖고 세미나를 마쳤다. <(사)섬김과나눔 사무국장 정의영 안수집사>

<1면에 이어>

와 사명자로서의 성실함이 정동여학교를 세우게 되었고, 오늘의 정신학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조그만 집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기거하며 성경과 언문과 한문을 가르치던 ‘교육선교’의 씨앗 정동여학당은 125년의 오랜 시간을 지나며 오늘날 한국 기독교 사학의 명문인 정신학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간직

한 채 뿌리를 깊이 내렸다. 그 정신학원안에 곧 25세가 되는 주님의교회가 깃들어 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에 교회의 헌신이 요구되는 지금, ‘교육선교’는 한국 교회와 주님의교회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겠다. 그러나 모든 일을 동시에 감당할 수는 없으므로, 교회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한국 교회에서 국내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선교의 현황을 공유한 가운데, 그 안에서 주님의교회가 헌신할 수 있는 지역과 대상, 방향의 지형도가 마련되고, 그 지형도 위에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하나님이 심어주신 씨앗에 응답하여, 씨앗을 뿌리는 일꾼으로

_ 정재상 목사

1. 자유와 숙명 신학자 폴 틸리히는 인간의 일생을 자유(freedom)와 숙명(destiny)이라는 양극적 개념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즉, 인간의 일생은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동시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제한된 숙명에 처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는데 있어서도 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숙명적인 부르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강제적이지 않았지만, 또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2. 하나님이 심어주신 말씀의 씨앗 저의 자유로운 선택과 하나님이 정하신 숙명을 아울러서 얻은 것은 말씀의 씨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신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움터올라 점점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은 말씀은 이사야 41장 15절-1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거갈 이 만들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 말씀과 만난 이후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번 반복해서 묵상하는 중에 저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놓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라 ‘타작기계’가 무엇인지, ‘까부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데체 성경에 또 있을 것 같지도 않은 까부른다는 단어를 성경에서 다시 만난다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믿음을 가져보겠다고 기도 했습니다. 그러던중 구약도 아닌 신약의 누가복음 22장 31절의 말씀에서 저는 이 단어와 다시 딱딱뜨리게 되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당시 저에게는 재상아, 재상아로 들렸습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22장 31-32절) 저는 까부른다는 단어를 다시 만나서 매우 놀랐지만 이번에는 그다음에 나오는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 마치 성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만나는 일과 같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3. 씨앗을 뿌리는 사람 저는 반 고흐의 그림 <씨 뿌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지금도 제 책상의 북스탠드에 붙여있고 때때로 쉴 때 이 그림을 보고 묵상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의 자유와 숙명이라는 발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즐거이 부르심을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저의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은 곧 목회 철학이 되기도 했습니다. 목회는 분명 홀로 하는 것이 아닌 연대성을 지닌 것이며, 또한 과거와 현

부르심의 길에 서서 _12



재 미래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2011년 주님의교회에 처음 와서 청년부를 맡았을 때 저는 전임자가 하던 목회를 그대로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해 놓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제 후임자에게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목회는 이러한 연장선상 위에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지금 현재 제가 뿌리고 있는 씨앗은 제가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수고하고 뿌린 씨앗은 제 후임자와 그때를 맞이하는 청년들과 주님의교회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림을 묵상하노라면 해가 뜨는 아침이 아니라 해가 지는 저녁인 것 같습니다. 농부는 하루종일 수고하며 씨앗을 뿌린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 까마귀가 날아다니며 농부가 뿌린 씨앗을 쪼아 먹기도 합니다. 그래도 농부는 묵묵히 씨앗을 뿌립니다. 때로는 헛수고 같을지라도,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 같아도 오늘도 묵묵히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보며 ‘나는 저렇게 하고 있는가?’ ‘오늘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저는 씨앗을 뿌리는 자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심을 더욱 믿기 때문입니다. (고전3:7)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 _ 지리산 함양 의탄교회 봉사를 다녀와서



시스템과 사진팀이 11월 9일과 10일에 경남 의탄교회에서 1박 2일 봉사를 함께 하였다. 안개 자욱한 시내를 벗어나 4시간을 달린 후 지리산 자락에 조용하고 아담한 의탄교회에 도착했다. 주님의교회 봉사내용이 적힌 플랜카드가 길옆으로 걸려있어 많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의탄교회 최경희목사의 인도로 시편 46편의 말씀으로 도착예배를 드리고 잘 정돈된 교회 본당에서 각 팀들이 자리를 잡았다. 벌써 네 분이 기다리고 계셔서 파마를 시작하고 발 마사지를 시작했다. 어르신들의 거친 발을 뒤꿈치부터 버퍼로 밀고 물티슈로 닦은 후 찻잎과 영양분을 넣은 따뜻한 죽육 대야에 발을 담근 후 닦고 마사지를 해 드리며 산촌(山村) 할머니들의 다양한 경상도 사투

가을 빛 짙은 새벽 멀리 함양을 향해, 늦지 않으려고 새벽 5시에 지하철 첫차로 교회로 출발하였다. 6시 20분까지 늦지 않고 갈수 있어 다행이었다. 국내 선교분과도 시계척선교팀 주관으로 미용팀과 호스피

리속에 막대기 사탕을 한씩 물고 “머리 뽀글뽀글하게 해줘” “조금만 다듬어줘.” “너무 뽀글뽀글하면 머리가 많이 약해져요” 하는 파마를 하며 나누는 말과 “발이 너무 차가우시네요, 따스한 녹차물에 담갔다 발 마사지 해드릴게요?” 하는 발 마사지 팀의 손끝으로 나누어 드리는 손길의 사랑을 느끼며 대화를 나누니, 한분 한분의 삶의 흔적을 보는 듯하고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 더욱 고마워하였다. 그 순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미를 생각하니 깊은 교감을 느꼈다. 발 마사지를 마친 한분 한분들 준비해간 한복 저고리를 입혀드려 장수사진을 촬영해 드렸다. 여인의 몸으로 혼자 쉽지 않은 사역을 하는 최경희 목사는 마을 여기저기 흩어져 계시는 할머니들을 찾아 모셔오고 또 마치고 모셔다 드리기를 반복하신다. 마을의 온갖 일을 다 담당하고 계시면서도 웃음을 잃는 선한 청지기의 모습 그 자체였다. 함께한 주방팀은 식사를 때마다 정성스럽고 맛깔난 음식으로 담당해주어 봉사자들은 더욱 신이 나고 은혜로웠다. 깨끗이 정리된 예배당은 밤에는 그자리가 침실이 되고 낮에는 일터가 되었다.

의탄교회는 “높아지거나 낮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교회”를 표어로 1985년 10월 23일 창립 28주년이 된 교회지만 시골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그 자체였다.

함께한 우리 모두는 각기 맡은 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나에게도 섬김에 자리를 허락하심에 할 수 있을 때 하자는 생각을 더욱 굳혔고, 주님의교회가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에 감사함을 느끼며 서울로 돌아왔다. <호스피스팀 문춘자 권사>

신천지 아웃! - CBS 특별기획 ‘신천지 아웃’ 후원 예배

11월 25일 주님의교회 예배는 좀 특별했다. 담임목회자 설교 대신, 동영상 하나가 먼저 방영되었다. CBS에서 기획한 ‘신천지 아웃’ 주제의 피해 사례를 엮은 동영상이었다. 특히 144,000명만이 구원받는다 신천지의 교묘한 구원론에 세뇌되어 가족과 친구를 버리는 고통스러운 장면과 함께, 기존 교회에 잠입해서 봉괴시키거나 유사 교회를 만드는 황당한 상황의 장면들은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다. 약 20분 정도의 동영상 상영에 이어, CBS의 종교부 부장인 나이영 목사가 신천지의 정체와 피해 사례에 대해서 15분 정도 설교를 이어갔다. 신천지는 조건부 종말론을 앞세운 종교 사기 집단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말씀과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신천지식 성경공부에 회유되기 쉬움을 경고했다. 특히 신천지는 ‘성경’을 구절과 단어 단위의 비유로 풀어 설명하는데, 이 ‘성경공부’를 통해 종말론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성경공부’로 유인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원호 담임목사는 이단을 구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역설했다. 사도신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결코 이단에 빠지기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교만과 나태가 이단을 발생하게 하고 방치하게 한다고 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혹시 청중 가운데 신천지의 마수에 휩쓸린 경우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앙의 진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이날의 예배를 마쳤다. <장경식 기자>



노방전도 - “씨 뿌리는 자의 할 일”

새생명축제를 위한 교구별 노방전도가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종합운동장역 입구에서 진행되었다. 추운 날씨에도 매일 20여명의 교인들이 전도에 참여하였다. 오고가는 행인들과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택시기사들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따뜻한 커피와 차를 대접하며 전도지와 말씀묵상지, 전도용품으로 준비한 휴지 등을 배부하였다. 특히 역 입구에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기사들은 운전 중에 들을 수 있는 말씀 CD와 찬양 CD를 흔쾌히 받아가기도 했다.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전도자들에게 격려의 덕담을 건네기도 하였다. 새생명을 위해 씨 뿌리는 노방전도가 은혜 가운데 마무리 되었다. 내 손 안에 미디어가 있고 어딜 가나 정보가 넘치는 시대이다. 낯선 사람이 반갑지 않고 건네주는 손길도 부담스러운 사회이다.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전도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회의적인 물음을 던질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자. 길 위에서 건네는 기쁜 소식이 누군

가에게는 꼭 필요한 구원이 된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씀을 상기하며, 길 위에서 뿌려진 씨앗들이 위로와 희망으로 피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아름다운 열매로 수확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도 12월 16일 새생명축제에 전도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와 보라’고 권하자. <김주현 기자>

‘거기 너 있었는가’ 묻는 가을 찬양 주오챔버오케스트라 찬양연주회

지난 11월 11일 주님의교회 로비에서 푸른 강물과 같이 아름다운 주오챔버오케스트라의 공연이 있었다. <거기 너 있었는가> 등 일곱 곡의 선율이 2부 예배와 3부 예배를 마치고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적셨다. “원래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공연을 해 왔었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에는 로비에서 은사사역박람회를 하는 까닭에 미루어진 것이지요” 제1바이올린 주자이면서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최영순 집사의 말이다. 주오챔버오케스트라의 ‘주오’는 ‘주님의 오직 영화로움을 위하여’를 줄인 말이라고 한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언약계 앞에서 비파와 수금을 타고 제금을 치며 나팔을 불어 여호와 하나님을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오챔버는 이처럼 연주 활동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데 뜻을 같이한 3명으로 출발했는데, 현재 단원은 12명입니다.” 단원은 전공자와 비전공자가 반반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연주는 4부 찬양대의 이명국 집사가 지휘했다. “결혼해서 서울로 올라와 주님의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주오에 참여했다”고 이날 첼로 파트를 담당했던 정주영 집사는 수줍게 말했다. 연주할 동안 아빠가 돌보고 있던 그이의 6개월 된 아기가 참 귀여웠다. <신형섭 기자>



청년부 기도학교 1기

깊어가는 가을 청년부에서는 기도학교를 개설하였습니다. 기도학교는 9/21-11/9 매주 금요일 저녁 8주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주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학업과 취업, 바쁜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갈망함이 있었던 36명이 청년들이 기도학교를 통해 전보다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분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배웠던 8주간의 시간동안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쉬운 종강을 하며, 기도학교에 입했던 청년들은 더욱 큰 열망을 가지고 각자의 기도학교를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정재상 목사>

* 성경_한자로 풀어보기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矜恤(궁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와 이름의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33장 19절)

矜恤(mercy)의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①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길다. ②불쌍히 여겨 동정하다(pity). ③안타까움으로 불붙는 마음이 되어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풀다. 라는 의미가 있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矜(불쌍히 여길 궁) : 고대 무기의 일종으로 “세모진 삼지창”을 의미하는 矛(창

모)에 “곧 바로”의 뜻이 있는 矜(이제 금)을 결합시켜 [창에 찔린 자를 곧바로 치료해주는 것은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의 문자를 만들었다. 이 문자는 그 외에도 “창 자루. 슬퍼하다. 꾸미다. 자랑하다. 아까다. 높다”라는 뜻을 더 지니고 있다.

★恤(불쌍히 여길 恤) : “생각”을 총괄하는 心(마음 심)의 변형체 忄(심방 변)과 “피 또는 피붙이, 씩씩하다”라는 뜻의 血(피 혈)이 합쳐 [마음으로 피흘려죽은 군사나 재물을 불쌍히 여긴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